



축산 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고객홍보처

66

2018년 새해, 달력만 바뀐 건 아니죠.

축산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고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축산 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공유합니다.

99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 시 전폭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만에 하나 AI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피해와 재정 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 40%(18년 90억 원), 지방비 보조 40%, 자부담은 20%로 실시된다.

지원을 받는 농가는 안전지역(가금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초과하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강화된 축산업 허가기준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 방역중점관리지구에 적용되는 엄격한 방역기준 준수, 기존 축사 철거 및 동일 부지 축사 재건축 금지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금농가는 관할 시·군·구(축산 담당과)에 지역단위 축산개편 계획,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문의하면 된다.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2018년부터 중소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담보력이 부족한 식품 중소기업의 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원료 구매 자금에 대한 부담 경감하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보증보험(최대 5천만 원)을 통해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 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도 50% 지원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의 원료 농산물 구매 자금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사 및 방역 조치를 위해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축산차량 등록 대상 외에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 차량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하여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GPS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 수송, 가축 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도 GPS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보호법 개정(2017.3.21.)에 따라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 4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해당 업체는 허가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업체는 2020년 3월 22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기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친환경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국산화, 농식품 안전성 확보 관련 R&D 지원 확대를 통해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을 신규 지원(18년 10억 원)한다. 또한, 농축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와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신규 지원(18년 34억 원)한다.

농협과 공동펀드를 조성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